

전자회관 신축공사, 순조롭게 진행



KEA 회원사업팀
김성수 팀장

전자업계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전자회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大役事의 현장은 바로 DMC 단지내의 B6-3필지.

DMC(Digital Media City) 단지는 200만평 규모의 상암새천년신도시에 서울시가 동북아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미래형 도시이다.

전자회관은 DMC 단지내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상 12층 지하 5층의 연면적 6,041평 규모로 건축된다. 설계는 설계분야에서 국내 최상위권인 삼우설계가 맡았으며, 시공은 풍림산업이 턴키베이스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착공한 이후 9월까지 공정율은 약 8%. 오는 10월, 지하 5층 약 26미터 굴토작업이 끝나면 바로 골조슬라브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모습이 점차 드러날 것이다. 준공 및 입주는 2007년 4월 예정이다.

전자회관은 “24시간 운용 Digital Office Tower”를 기치로 내걸고 층별 공조시스템, 최저 관리비용 시스템 및 맞춤형 섹션오피스 도입 등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입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회는 전자회관에 회원사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며, 전자부품연구원 의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수신기 개발지원센터를 비롯한 R&D 기관, 각종 유관단체의 동반입주를 통해 전자회관이 디지털 전자산업의 클러스터가 되게 할 계획이다.

이번의 전자회관 건립 추진과정을 간략히 뒤돌아보면, 이전에도 전자회관 건립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추진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7월 전자회관 건립위원회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2003년 4월 이사회에서 전자회관 건립

을 위한 특별회비를 결의한 것은 전자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전자업계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을 뒷받침 하는 첫번째 실행조치였다. 곧이어 서울시로부터 DMC 단지내의 사업용지 628평을 매입하였고 지난해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3월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4월 착공에 이르기까지 건립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 진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산업자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사들의 특별회비 납부는 물론, 일반회원사들의 찬조출연이 큰 힘이 되어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연한 회원사는 준공후에 건물 전면의 동판에 새겨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